

자료제공 : 2023. 6. 23.(금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자치행정과

자치행정과장	송광남	2133-5800
자치팀장	호종원	2133-5816
담당자	박준하	2133-5809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서울시, 본격적인 장마 앞두고 자치구 현황 점검에 나서

- 시-자치구 간 본격적인 장마철 맞이 안전 대응체계 선제적 현황 점검
- 취약지역 피해예방 대책 추진으로 시민 안전 확보
- 침수 취약지역 중점 청소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쓸 것을 자치구에 당부
- 금천구는 침수방지시설 사전설치(1,354개소), 관악구는 빗물받이 준설 횟수를 확대(1회→4회이상)하여 자치구 맞춤형 주민 피해예방에 나서

-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, 서울시는 수해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일 오후 4시 김의승 행정1부시장 주재로 부구청장회의를 개최했다.
-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예측되어 역대급 폭우가 전망되는 만큼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 등 협력방안을 당부했다.

- 서울시는 작년 8월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오더라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예정이며, 자치구 역시 구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예방 활동과 꼼꼼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.
- 작년 여름 서울에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, '22.8.8~9일 동작구에 내린 시간당 141.5mm는 15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였다. 당시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68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.
- 서울시와 자치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지금까지 펼쳐왔으며,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.

〈서울시 대책 및 협조사항〉

- 서울시는 빈틈없는 수해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침수 예·경보제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, 재난시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 파트너 구성·운영한다. 또한,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등 시설별 맞춤형 방재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에 지하시설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침수우려지역 순찰 등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.
- 다음으로, 침수 취약지역 청소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빗물받이 주변 및 가로변 골목길 등을 집중적으로 청소해 수해 취약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신속한 청소를 요청했다.

〈자치구 대책〉

-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구의 상황에 따른 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고, 이번 회의에서는 금천구와 관악구가 자치구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과 진행현황을 발표했다.
 - 금천구는 관내 취약주택에 물막이판,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1,354개소, 양수기 288대를 사전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하였으며, 취약지역에 수방용 모래마대 6,200여개를 전진 배치하였다. 또한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침수피해 예방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.
 - 관악구는 취약지역에 빗물받이 준설 횟수를 연1회에서 연4회로 확대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현재까지 3회이상 준설을 완료했다. 또한 치수현장 응급기동반을 확대 구성하였으며, 인명 구조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.

-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“시민 안전에는 과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”며, “모든 재난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과 대비라고 할 수 있는 만큼,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심해 인명·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